

잠복의 시대

1669 년

나가사키 부교 고노 곤에몬 미치사다가 주물공이었던 하기와라 유사에게 낚시로 만든 후미에 20 장의 제작을 의뢰함

1708 년

예수회의 선교사 조반니 시도티 신부가 일본에 잠입함

1797 년

오무라 번과 고토 번 사이에 잉여 인구 이주 협정이 체결된 결과, 소토메 잠복 기리시 탄들이 고토 열도로 이주하게 됨

[이미지 07]

소토메의 기리시탄이 상륙한 장소로 알려진 무카타노하마(고토시)

1790 년~

우라카미 이치반쿠즈레(야마자토 촌장의 호소에 따라 포박된 19 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됨)

1805 년

아마쿠사쿠즈레(5,000 명이 넘는 주민들이 포박되지만 결국 이교(異敎)에 대한 신앙으로 판단하여 방면됨)

1838 년

로마 교황청이 일본 내 선교를 파리 외방 전교회에 위탁함

1839 년 또는 1842 년

우라카미 니반쿠즈레(밀고에 의해 조카타(지도자) 등이 포박되나 결국 방면됨)

1846 년

파리 외방 전교회의 선교사 데오도르 포르카드 신부가 승선한 프랑스 함대가 나가사키

앞바다에 정박함. 상륙은 허가받지 못함

1853 년

미국 동인도 함대 사령장관 페리가 우라가에 내항하여 무역을 위해 일본항의 개항을 요청함

1854 년

막부와 미국 간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됨

1856 년~

밀고에 의해 조카타 기치조를 비롯한 기리시탄이 투옥되고 고문당하는 우라카미 산반 쿠즈레가 발생함

이 사건은 이교(異敎) 사건으로 처리됨

1858 년

나가사키 부교가 후미에 폐지를 명령함

1858 년

안세이 5 개국 조약이 체결됨(미국, 영국, 프랑스, 네덜란드, 러시아)

1862 년

파리 외방 전교회의 선교사 프루던스 지라르가 요코하마에 천주당을 건립함

1862 년

나가사키의 외국인 거류지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건립됨

로마에서 일본 26 성인을 시성함

1863 년

파리 외방 전교회의 선교사 루이 뷔레 신부와 베르나르 프티잔 신부가 잇달아 나가사키에 도착함

1865 년

오우라 천주당의 헌당식이 거행됨

‘신자 발견’

1865 년

오우라 천주당에서 우라카미무라의 잠복 기리시탄이 신앙을 고백함(신자 발견)

[이미지 08]

성모 마리아상(오우라 천주당)

1867 년~

우라카미 요반쿠즈레(나가사키 부교 도쿠나가 이와미노카미 마사요시가 우라카미의 비밀 교회를 습격함)

1868 년

우라카미 기리시탄의 중심 인물 114 명이 하기, 쓰와노, 후쿠야마의 세 번으로 유배됨
유배로부터 귀향길에 오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‘다비(여행)’라고 부름

1868 년

히사카지마의 ‘로야노사코’ 사건을 시작으로 고토쿠즈레(기리시탄들이 대거 적발된 사건)가 시작됨

1870 년

우라카미의 기리시탄 3,394 명이 20 개 번의 22 개소로 유배됨
영국, 미국, 프랑스, 독일 공사단이 우라카미 기리시탄의 귀환을 요구함

1871 년

이와쿠라 사절단이 서양 제국으로 출발하고, 도항한 각지에서 신교의 자유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됨

1873 년

그리스도교 금교령이 철폐됨
우라카미의 기리시탄 2,911 명이 귀환함(유배 중 613 명이 사망)

1889 년

대일본제국헌법에 따라 신앙의 자유가 인정됨

1906 년

나가사키 부교쇼(봉행소, 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관청)의 옛 창고에서 기리시탄 관련 유물이 제실박물관에서 일반 공개됨

1930 년

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의 선교사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수도사가 나가사키를 방문함

1945 년

원자폭탄으로 인해 우라카미 천주당이 파괴됨

1953 년

오우라 천주당이 국보로 지정됨

1962 년

일본 26 성인 기념관과 기념비가 공개됨

1977 년

구 나가사키 부교쇼에 남겨져 있던 대부분의 기리시탄 관련 유품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됨

1981 년

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가 나가사키를 방문함

2008 년

나가사키시에서 일본 최초로 시복식이 거행됨

(일본인 최초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베 페트로 외, 에도 시대에 순교한 신자 187 명이 대상)

2018 년

‘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